

기후의 경고... “지금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물의 삼중주’
몰입형 전시공간에 ‘인류세’ 펼쳐내
한국 장승호·대만 로버트 작가 참여
서식지 파괴·멸종 위기종 등 모티브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하반기 실감 콘텐츠전으로 기후위기의 경고를 담은 ‘물의 삼중주’를 오는 12월 5일까지 G.MAP 4전시실 및 외벽 미디어 파사드월에서 선보인다. 몰입형 전시공간에서 인류세(人類世) 진입 이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기후위기를 주제로 꾸민 전시다. 올해 여름이 앞으로 있을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기후위기는 현존 인류만 아닌 미래 인류에게도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 전시의 취지이다.

이번 전시는 G.MAP이 (사)한국화랑협회와 공동으로 주관, 대만 C-LAB(Contemporary Culture Lab)이 협력했다. 올해 Kiaf(한국국제아트페어)에서 제시한 ‘확장’ 개념을 통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동시대 미술에 대한 지역 간 협업은 물론, 대만 문화부 산하로 2018년부터 예술의 창조와 혁신을 위해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C-Lab과의 연계를 보여준다. 전시를 통해 사회 담론과 지역·국가 간 소통을 아우르는 동시대 미술의 현장성도 보여주어 의미가 깊다.



장승호 작 What Is In Harmony.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제공

‘물의 삼중주’ 전시는 기후요소인 기온, 강수량, 바람 세 가지 요소에서 착안했다. 기후요소인 기후와 바람은 해류에 큰 영향을 받으며, 강수량은 비와 눈 등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를 세 가지 요소의 연쇄반응 또는 연계현상이라 해석해 언어·시각화하는 목적이 있다. 특히 인류가 자연에 가한 행위로 인해 생긴 부작용과 위험성을 아름답지만, 호소력 있는 미술로 나타내는 의의가 있다.

전시는 장승호(한국), 로버트 창 치엔(Robert Chang Chien, 대만) 두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각 작품은 바다의 흐름, 눈과 비, 구름 등 인류 생존에 밀접한 ‘물’을 기후와 연결해 작가만의 조형언어로 풀어냈다. 이를 통해 기후, 미술, 인간 세 가지 주제가

융화된 영상미와 더불어 기후위기라는 주제에 대한 사색에 빠져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장승호는 What is in Harmony를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작품은 작가가 지향하는 만물의 조화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세계가 표현됐다. 각 국가를 대표하는 인공물과 자연 산천이 조화롭게 묘사돼 있고, 그 위에 고래가 하늘을 날고 있다. 고래는 서식지 파괴, 기후 및 환경 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해양생물이다. 바다 대신 공중을 유행하는 고래는 인류의 자연, 생명의 공생 관계의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로버트 창 치엔의 Narstalgia는 북극 아이슬란드를 배경으로 해, 사라져 가는 빙하와 일각고래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과 지역의 위태로움을 나타냈다. 특히 작품 제목은 작가가 일각고래(Narwhal)와 Solastalgia(기후, 환경변화로 인한 우울감)를 합성해 만든 것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아름답지만 호소력 있게 표현했다.

G.MAP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오를랑 특별전 또한 기후위기 관련 작업을 감상할 수 있다. 오는 26일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기후위기 전문가, 문화기관 전문가 등을 초빙해 ‘공생,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생명체를 위한 예술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2024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국제포럼도 연다. 포럼 당일에 호주의 유명 현대미술작가인 스텔락(Stelarc)의 관련 퍼포먼스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제15회 광주예총 공연아트페스티벌 광파르

27일 하늘마당 야외무대 등
소속 10개 단체 공연·전시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가 오는 27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야외무대와 플라자 브리지에서 제15회 공연아트페스티벌을 연다. 광주예총 소속 10개 문화예술단체가 공연(국악·무용·연극·연예·영화·음악협회)과 전시(건축가·문인·미술·사진협회) 작품을 한데 모아 광주 시민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국악협회는 완도 금당도에서 행해지던 농악놀이 중 하나인 서한유류 버구춤과 진도씻김살풀이 등 신명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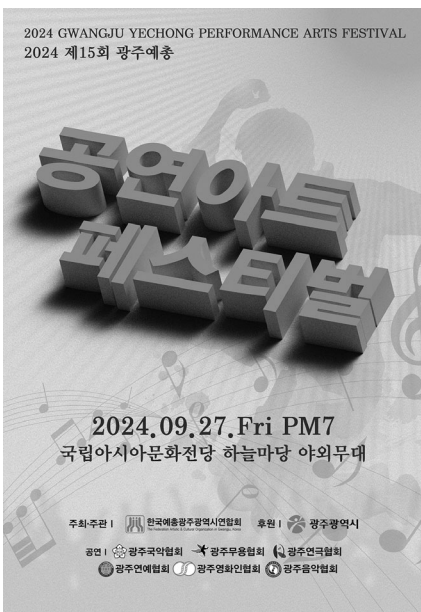
광주연극협회는 ‘평상위에 할머니들’이라는 제목의 극을 선보인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할머니들의 무용담과 구수한 입담을 평상 무대 위에 펼쳐낸다.

광주음악협회는 성악 무대를 비롯해 색소폰, 피아노, 베이스, 드럼 구성으로 재즈와 크로스오버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연주해 선보인다.

광주영화인협회는 추억의 변사극 무성영화 ‘이수일과 심순애’로 관객들을 찾는다. 목소리 마술사 변사 최영준의 신파 연기와 심금을 울리는 노래 솜씨가 눈길을 끈다.

광주연예협회는 대중가수 진이랑을 초청해 저 쏙스에 찬란한 빛이, 사랑 아리랑, 노란샤스 사나이 등을 들려준다. 또 대중가수 진국이가 진짜멋쟁이, 영영, 미워도 다시한번을 부른다.

광주무용협회는 광주로알발레단의 무대로 낭만발레 대표작 ‘공기의 요정’을 선보인다. 스코틀랜드 농촌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앞둔 청년 제임스가 실피드에 매혹되면서 벌어지는 비극을 그린 작품이



다. 제3회 세계무용연맹 전국무용콩쿠르 안무자상을 수상한 문서민 무용단이 창작극 ‘시월, 베르니케’를 선보인다.

광주전남건축가회는 광주지역에서 활발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12명의 건축가들을 통해 지역건축의 일상을 공유한다.

광주문인협회는 47명 회원들의 시화 작품을 통해 K-문학의 산실을 선보인다.

광주미술협회는 23명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을 선보인다.

광주사진협회는 24명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사진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집대성한다.

전시 부문은 오는 2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 브리지 일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은 “광주예총 페스티벌이 광주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지역예술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별 장르별 갈등해소와 예술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소년소녀들 우정의 목소리 감상해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합창제
28일 광주예당 대극장 8팀 참여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광주시소년소녀합창제를 오는 28일 오후 7시 광주예술평화당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019년 3회를 끝으로 중단됐던 행사가 재개되는 것이다.

올해 4회 행사에서 합창음악의 발전,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우리지역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우정의 목소리를 나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광주카톨릭평화방송 Fiat Domini 소년합창단,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광주송원초등학교 소리모아합창단, 광주파랑새합창단까지 총 7개 단체, 300여명이 참가한다. 또 우리지역 부부로 구성된 광주사랑의부부합창단이 특별출연한다.

참가팀들은 각 2곡씩 총 16곡을 들려준다. 클래식부터 성가곡, 동요, 가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

마지막에는 전원이 한 무대에 올라 연합합창 ‘웃는 나 웃는 날’(박진영 곡)을 김준수 광주합창연합회장의 지휘로 선보이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은 4세 이상(2020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관람 가능하고 티켓은 전석 5000원으로 광주예술평화당 누리집,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 ACT페스티벌 문화상품 3종 출시

키링·책갈피 등 들락서 가죽
식물 원료 가죽 제품 눈길

“ACT 페스티벌 굿즈와 함께 융·복합 콘텐츠 페스티벌을 즐겨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은 9월 27~29일 개최하는 ‘ACT 페스티벌 2024’와 연계한 문화상품 3종을 개발해 출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ACT(Arts & Creative Technology) 페스티벌’은 ACC를 대표하는 융·복합 예술 축제다. ‘만약에?: 미래를 보는 다양한 시선’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퍼포먼스) △AR 홀로그램 전시 △필름 스크리닝 △강연 △토크 등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작품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에 따라 ACC재단은 대중에게 ACT 페스티벌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인지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사 로고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을 개발했다. 창의



ACT 페스티벌 연계 문화상품.

ACC재단 제공

(Creative)를 상징하는 알파벳 ‘C’를 변주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된 ACT 페스티벌 로고를 활용한 문화상품은 △가죽 카라비너(강철 스프링 고리) 키링 △가죽 책갈피 △메탈 핀 배지 등 3종 5개 품목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소재로 제작해

눈길을 끈다. ‘가죽 키링’과 ‘가죽 책갈피’는 동물성 소재가 아닌 나무껍질을 원료로 하여, 식물에서 채취한 천연 단백질을 가공한 뒤 전통 가죽 제조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ACT 페스티벌 2024’ 연계 상품은 ACC 문화상품점 ‘들락 DLAC’에서 구매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